

해명자료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김광수 과장(☎750-2770)
개인정보보호윤리과 허은영 사무관(☎750-2771) eyhuh@kcc.go.kr

애플에 면죄부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

‘11. 6. 23.(수) 경향신문 “방통위, 해명서 1장만 받고 애플에 면죄부”
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보도 내용

“방송통신위원회,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애플에 대한
현장조사 없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경미한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는
등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.”고 보도함

□ 해명 내용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,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논란에 대해 조사를
진행 중이며, ▲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, ▲무혐의 판단 등 조사
결과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음을 밝힙니다.
2.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
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.
끝.